

## The Mediating Effects of Solidarit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Yeo Joo Jung<sup>1#</sup>, Sun Mi Kim<sup>2+</sup>, Eun Ha Kim<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25, Daehak-gil, Hongseong-eup,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Korea

<sup>2</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o test the role of solidarity that mediates this relationship.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safety awareness and solidarity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 379 surveys from elderly households collected in 2014.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bel test was used to validate the mediating effect and mediation pathway significance suggested by Baron & Kenny(198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afety awareness and solidarity of elderly peopl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sense of solidarity of elderly people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Key words:**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social safety awareness, solidarity

### 1. 서론

우리나라는 전쟁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경제발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생태계의 훼손 및 각종 재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안전은 중요한 욕구이지만 이러한 각종 사회적 위험은 삶의 만족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달을 이루며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다양한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 때마다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많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미비해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삶의 만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m, *et. al.*, 1997)

각종 사고에 대한 재난 약자로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집단은 노인이다. 외국의 경우도 약 35,000명의 사망자를 낸 유럽 폭염,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도 피해자 대다수가 노

# The 1st author: Yeo Joo Jung, Tel. +82-41-630-3209, e-mail, [yjjung@chungwoon.ac.kr](mailto:yjjung@chungwoon.ac.kr)

+ Corresponding author: Sun Mi Kim, Tel. +82-70-8638-8064, e-mail, [sunmine@hanmail.net](mailto:sunmine@hanmail.net)

약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다(Lee, 2012). 재난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보적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열악할 뿐 아니라 대응능력이 부족한 그룹으로 정의되며, 대표적 재난취약계층에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영아 및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14). 전북 지역 노인들의 재난취약성을 연구한 문헌에서도 노인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취약성 및 재난정보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집단의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들이 각종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한 노년을 위해 재난안전복지서비스 구축은 중요한 주제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재난관련연구는 우리사회의 재난약자로서 분류되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을 위해 재난관리의 수준이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취약한 노인 계층의 재난안전복지 수준만을 살펴본 연구(Kim, *et. al.*, 2014)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사회안전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성별 및 건강 상태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Jin & Lee, 2000; Park, 2004; Kang & Kim, 2009; Un, 2016), 경제생활만족도 및 공적연금 여부 등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Lee & Lee, 1997; Ha, 2007; Lee, *et. al.*, 2010;), 사회적 지지망(Kim & Park, 2000; Kim, 2010) 등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종교가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Young, *et. al.*, 2004; Gaymu & Springer, 2012)

외국문헌에서 삶의 만족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으며(Kane, 2001), 지역사회의 안전인식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하며(Leslie, *et. al.*, 2008), 안전인식도가 낮아질수록 고령자의 우울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가(Wilson-Genderson & Pruchno, 2013)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안전 또는 위험은 동일한 문화와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Seo & Lee, 2012).

또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삶의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유대감이 전통사회에 비해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연구에서도 연대감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im, 2000; Bjornskov, 2003; Helliwell & Putnam, 2004).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도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et. al.*, 2004; Walker & Hiller, 2007).

지금까지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에서야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의 하나의 요소로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대감이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으나 연대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대한 안전인식이 높다는 것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노인의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재난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안전인식 및 연대감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이 삶

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와 이 두 변수 관계에 있어 연대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하여 급속하고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재해에 있어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그리고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되, 사회안전인식이 연대감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서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들의 연대감은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에 매개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사회안전인식은 ‘주관적으로 사회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시민들의 주관적인 안전 또는 위협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문화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Seo & Lee, 2012).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 사기, 심리적 복지, 적응의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지만 좀 더 종합적 개념으로서 생활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Bae, 2012), 삶의 질에서 중요한 측면이다(Kickbush, 2003; Inaba, *et. al.*, 2015)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사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식품안전, 정보보안, 의약품안전, 신종 전염병, 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은 위협하지 않는 상태이며, 위협은 어떠한 부정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Quarantelli, 1988; WHO/EHA, 2002). 일반적으로 안전과 위협은 대비되는 개념으로(Seol, 1998), 안전 또는 위협은 위협원의 객관적인 수

준으로의 측정, 객관적 위협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위협을 인식 할 경우 위협의 판단 증거는 객관적 위협원에 대해서 사람의 주관적인 위협 인식정도로 예측되는데, 주관적인 접근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 존재를 전제한다(Short, 1984).

이러한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몇몇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안전인식수준과 전반적 삶의 질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et. al.*, 1997). 노인의 지역사회 안전인식은 주관적인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인식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안감,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 2. 사회안전인식, 연대감과 삶의 만족도

Bell & Healey(1992)는 연대감은 직접적으로 소속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Wheelless(1976)는 연대감은 전적인 신뢰, 상호호혜, 자기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대감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보스턴 마라톤에서 발생했던 폭탄테러 이전과 이후로 이웃간의 연대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인식은 연대감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Brenner, *et. al.*, 2015). 즉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연대가 높고,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진다. 또한 지역주민 간 신뢰와 유대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 안전하며, 이러한 신뢰의 축적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함이 보고되었다(Na, *et. al.*, 2005). Shin & Shin(2016)의 연구에서는 안전마을 시범사업지역을 통해 동네 사람들 간의 왕래가 잦아지고, 동네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 잘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대감의 가치를 인정한 문헌들도 있다(Rountree & Land, 1996; Kanan & Pruitt, 2002).

연대감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도 소수 있다. 주민 간의 신뢰나 마을의 공통적 규범인식 등은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9).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자녀의 존재와 자녀와의 접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노인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Gaymu & Springer, 2010), 사회지지망 유무에 따라 독거노인의 생활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Kim & Park, 2000). Maass, et. al.(2016)의 연구에서 역시 이웃과의 우호적인 관계들이 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가족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소외로 인한 우울 등의 다양한 문제에 놓여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간의 연대감은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진다(Rim, 2000). 시민참여, 신뢰, 사회적 연대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Helliwell & Putnam, 2004), 삶의 만족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Bjornskov, 2003).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줌에 있어서 연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지역 사회는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소속감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La Gory, et. al., 1985) 연대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Maass,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연대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접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연대감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연대감이 매개적 역할을 한

연구(Yoon & Yeom, 2015)를 토대로 연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4년도 제 4회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수준 측정과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원자료의 조사대상은 5,000여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중 노인 세대 가구주만을 추출한 후 부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총 379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문항 중 행복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자신의 일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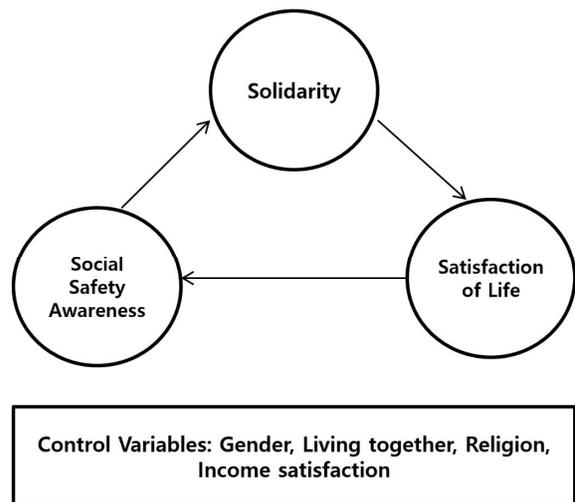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한 전반적인 가치감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총 3문항으로 매우 그렇다(0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0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연구자가 역채점 처리하였으며, 3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는 Cronbach's  $\alpha$  는 .863로 나타났다.

### 2) 사회안전인식

사회 안전인식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염, 폭설 등),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붕괴 등), 교통사고, 화재사고, 식품안전(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등), 의약품안전(마약, 부정불량약품 등), 신종 전염병(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범죄(폭력, 절도 등) 총 9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1점(매우 안전)에서부터 5점(매우 불안)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연구자가 역채점 처리 하였으며, 9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안전인식의 척도는 Cronbach's  $\alpha$  는 .910으로 나타났다.

### 3) 연대감

연대감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로서 언급되며,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연대감 문항은, 나는 대전 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 등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시 사회조사에서 연대감으로 정의된 문항이다. 총 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연구자가 역채점 처리하였으며, 4문항의 평균이 높을수록 연대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대감의 척도는 Cronbach's  $\alpha$  는 .739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성별, 동거여부, 종교, 소득만족정도가 연구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 4. 분석 방법

총 379명의 응답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및 연대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과정에 근거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대감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73.6%(279명)는 여성, 26.4%(100명)는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70대가 49.8%(189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음 44.6%(167명), 개신교 24.8%(94명), 불교 20.1%(76명), 천주교 9.2%(35명), 기타 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사별 78.4%(297명), 유배우 10.0%(38명), 이혼/별거 8.7%(33명), 미혼 2.9%(11명)이었으며, 연령은 70대 49.8%(189명), 80대 이상 31.5%(119명), 60대 18.7%(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삶의 만족의 수준

본 연구의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삶의 만족의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토를 살펴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Sample descriptive statics

Variable		Frequency	%
Gender	Female	279	73.6
	Male	100	26.4
Religion	Protestant	94	24.8
	Buddhism	76	20.1
	Catholic	35	9.2
	Other	7	1.3
	None	167	44.6
Marital status	Single	11	2.9
	Has a spouse	38	10.0
	Divorce/Separation	33	8.7
	Bereavement	297	78.4
Age	From 60 to 69	71	18.7
	From 70 to 79	189	49.8
	80 year old or older	119	31.5
Total		379	100.0

Table 2. Level of major variables (n=379)

	Num.	Min.	Max.	Ave.
Social Safety Awareness	9(5points)	9	45	30.07
Solidarity	4(5points)	5	20	13.16
Satisfaction of Life	3(11points)	0	30	15.20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절대값 .8 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Gender(1=Male)	1						
2. Living together(1=yes)	.298*	1					
3. Religion(1=yes)	-.228**	.013	1				
4. Income satisfaction	-.040	-.013	.016	1			
5. Social Safety Awareness	.000	-.107*	.019	-.012	1		
6. Solidarity	-.021	.103*	.120*	.218**	.087	1	
7. Satisfaction of Life	-.102*	.113*	.091	.271**	.152**	.416**	1

\*p<.05, \*\*p<.01, \*\*\*p<.001

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동거유무, 종교유무, 소득만족정도를 설정한 통제변수, 사회안전인식을 순서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Model 1에서, 통제변수 중 소득만족정도 ( $\beta = .270, p < .001$ ), 동거유무( $\beta = .174, p < .01$ ), 성별 ( $\beta = -.131, p < .05$ )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소득만족수준이 높을수록,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여성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사회안전인식을 투입한 Model 2에서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 $\beta = 3.345, p < .001$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1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소득만족정도, 동거유무, 성별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연대감의 매개효과 분석

연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1단계에서 사회안전인식은 연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beta = .101, p < .001$ ). 2단계에서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안전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26, p < .001$ ).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의 결과와 같이 X(사회안전인

Table 4. Effect of social safety awarenes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mong elderly households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Constant		7,944(1,395)		11,843(1,755)	
Control Variable	Gender	-1,529(.606)	-.131*	-1,518(.597)	-.130*
	Living together	2,972(.870)	.174**	2,416(.871)	.141*
	Religion	.535(.513)	.052	.445(.506)	.043
	Income satisfaction	1,033(.184)	.270***	.878(.186)	4,707***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afety Awareness			.136(.041)	3,345**
Model Fit	F	11,863***		12,323***	
	R <sup>2</sup>	.137		.166	
	Adj. R <sup>2</sup>	.126		.152	

(Gender: 1=male, Living together : 1=yes, Religion: 1=yes)  
 \*p<.05, \*\*p<.01,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afety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Step 1		Step 2		Step 3	
		X → M		X → Y		X, M → Y	
		B(S,E)	$\beta$	B(S,E)	$\beta$	B(S,E)	$\beta$
Constant		9,985(.834)		7,977(1,395)		2,018(1,537)	
Control Variable	Gender	-.161(.362)	-.049	-1,526(.606)	-2,522*	-1,433(.568)	-2,525*
	Living together	1,210(.520)	.013	2,972(.870)	3,414**	2,254(.821)	2,746*
	Religion	.647(.307)	.029	.535(.513)	1,043	.152(.483)	.314
	Income satisfaction	.484(.110)	.046	1,033(.184)	5,605***	.745(.177)	4,213***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afety Awareness	.049(.025)	.193***	.146(.041)	3,563***	.117(.039)	3,026**
Parameter	Solidarity					.593(.081)	7,317***
Model Fit	F	6,696***		11,186***		47,325***	
	R <sup>2</sup>	.070		.137		.182	
	Adj. R <sup>2</sup>	.082		.126		.178	
Z-Score		4,985***					

(Gender: 1=male, Living together : 1=yes, Religion: 1=yes)  
 \*p<.05, \*\*p<.01, \*\*\*p<.001

식) → Y(삶의만족도)와 X(사회안전인식), M(연대감) → Y(삶의만족도)를 비교할 때 X(사회안전인식)의  $\beta$  값이 3,563에서 3,026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결과는 M(연대감)이 X와 Y 사이에서 부분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대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317, p < .001$ ). 사회안전인식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26, p < .001$ ). 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그리고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되, 사회안전인식이 연대감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서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분석한 결과, 사회안전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의 지역사회안전인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ee(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인들의 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연대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나타난 선행 연구들(Bjornskov, 2003; Gaymu & Springer, 2010; Kim & Park, 2010; Kang, *et. al.*, 2016)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 연대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밝힌 연구(Helliwell & Putnam, 2004)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노인의 사회안전인식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연대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안전인식이 낮아도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연대감을 높인다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은 준다.

넷째,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동거유무, 종교유무, 소득만족정도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동거유무, 소득만족정도로 나타났으나, 종교유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소득만족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Lim, *et. al.*, 1997; Yip, *et. al.*, 2007; Jeong & Jeong, 2011; Kang, *et. al.*, 2016)과 일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각종 재해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의 환경 특성 및 안전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악하여 안전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 및 이들이 처한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전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대학 및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사회 내 많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 홍보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내 시 취약 계층에 맞춤형 대피법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필요며, 자연재해나 기상, 화재 등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대처를 미흡한 상황이다. 그중 가족의 해체로 인해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독사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것은 외로움 즉,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6).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가족 간, 이웃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 및 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문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포레상담, 각종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노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사업에 노인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 조사 결과로 연구결과는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에 한에서만 일반화시킬 수 있다

는 제한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차 자료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데 제한적이다. 후속연구로 노인의 세대별, 성별 특성에 따른 사회안전인식의 세부항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 Bae, Jin Hee. 2012. Effect of Residenti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Eld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2: 1-25.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l, R. A. and J. C. Healey. 1992. Idiomatic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olidarity in Friends' Relational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8: 307-335.
- Bjo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Brenner, P. S., J. L. LeBlanc, A. M. Roman, and N. O. A. Kwate. 2015. Safety and Solidarity After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 Comparison of Three Diverse Boston Neighborhoods. *Sociological Forum*. 30(1): 40-61.
- Gaymu, J. and S. Springer. 2010. Living Condi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Europeans Living Alone: A Gender and Cross-country Analysis. *Ageing and Society*. 30: 1153-1175.
- Gaymu, J. and S. Springer. 2012. How Does Living Alone or With a Partner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Men and Women in Europe?: A Gender and Cross-country Analysis. *Population*. 67: 43-69.
- Ha, Choon Kwang. 2007.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Senior Citizens on Public Pension Plans and Those Without Pension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Kyungshung University)*. 23(3): 1-21.
- Helliwell, J. F. and R.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Inaba, Y., Y. Wada, Y. Ichida, and M. Nishikawa. 2015. Which Part of Community Social Capital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A Multilevel Analysis Based on a Nationwide Mail Survey in Japan. *Social Science & Medecine*. 142: 169-182.
- Jeong, Woon Young and See Eun Jeong. 2011.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4): 1119-1134.
- Jin, Ki Nam and Kyu Sik Lee. 2000. Satisfaction Across the Sub-domains of Life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alogen and Social Science*. (6 · 7): 35-53.
- Jung, Yeo Joo. 2018. Factors Affecting Social Security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781-788.
- Kanan, W. J. and M. V. Pruitt. 2002. Modelling Fear of Crime and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The (In)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4): 527-548.
- Kane, R. A. 2001. Long-Term Care and a Good Quality of Life: Bringing Them Closer Together. *The Gerontologist*. 41(3): 293-304.
- Kang, Eun Taek, Jung Ku Kang, and Kang Rae Ma. 2016. Subjective Well-being One-person Households: Focus on Non-married and Married One-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7(1): 3-23.
- Kang, Hyun Jung and Yun Jeong Kim, 2009.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1): 71-80.
- Kickbush, I. 2003.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A New Public Health and Health Promotion.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3): 383-388.
- Kim, Jung You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atisfaction of Life among the Women Elderl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2): 29-62.
- Kim, Ki Tae and Bong Gil Park. 2000.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20(1): 153-168.
- Kim, Myung Gu, Gi Geun Yang, and Gi Sung Chung, 2014.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aster-Safety Welfare of the Vulnerable Groups from Natural Disaster. *Crisisonomy*. 10(9): 113-135.
- La Gory, M., R. Ward, and S. Sherman. 1985. The Ecology of Aging: Neighborhood Satisfaction in An Older Popul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 405-418.
- Lee, Jeon Hwa and Young Eun Oh. 2010. The Effect of Adult Children's Support, Marital Relationships and Neighborhood Solidarity on Happiness and Depression of Korean Middle & Old Adults. *Proceedings Korea Society of Age*. 2010: 350-351.
- Lee, Kab Yong, Won Ho Song, Jang Suk Lee, Jae Hee Kang, and Yong Keun Cho. 2010.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in Aging Society. *Management Consulting Reviews*. 1(1): 147-162.
- Lee, Sun Hyung and Yon Suk Lee. 1997.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 31-43.
- Lee, Sung Eun. 2016. The Effects of Community Safety Percep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6: 129-135.
- Lee, Yu Jin. 2012. *Climate Change Story*. Paju: Salim Publishing.
- Leslie, E. and E. Cerin. 2008. Are Perceptions of the Local Environment Related to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in Adults? *Preventive Medicine*. 47(3): 273-278.
- Lim, Hyun Jin, Jae Yeol Yee, Kwang Min Park, and Dong Hoon Seol. 1997.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d Psycho-Physical Saf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 161-199.
- Maass, R., C. A. Kloeckner, B. Lindstrom, and M. Lillefjell. 2016. The Impact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A Possible Pathway for Health Promotion? *Health & Place*. 42: 150-128.
- Na, Young Sun, Jae Yel Lee, Joon Sang Han, Kyung Mook Lee, and Sung An Han. 2005. *Social Capital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Park, Ki Nam. 200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13-29.
- Park, Young Soon. 2009.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to Residents'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Tourism Village. Ph.D.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 Quarantelli, E. 1978. *Disaster: Theory and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Rim, Choon Seek. 2000. Esteemed Elder and Youth: The Likelihood for Formation of Community Sense of Unity. *Welfare for the Elderly*. 7(3): 215-236.
- Rountree, P. W. and K. C. Land. 1996. Perceived Risk Versus Fear of Crime: Empirical Evidence of Conceptually Distinct Reactions in Survey Data. *Social Forces*. 74(4): 1353-1376.
- Seo, Jae Ho and Seung Jong Lee.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itizen's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With a Focus on Regional Governments. *Crisisonomy*. 8(3): 1-20.
- Seol, Dong Hun. 1998. Risk Perception among Korean People.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Science*. 20(1): 22-61.
- Shin, Woo Hwa and Woo Jin Shin. 2016. A Comparative Study on Before and After Building Daegu Resident-Centered Safe Community from Crim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2): 19-30.
- Walker, Ruth B. and E. Hiller, Janet. 2007. Places and Health: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How Older Women Living Alone Perceive the Social and Physical Dimensions of Their Neighbourhoods. *Social Science & Medicine*. 65: 1154-1165.
- Wheless, L. R. 1976.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Solidarity: Measurement, Validation, and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47-61.
- WHO/EHA. 2002. *Disaster & Emergencies Definitions*. Training Package Panafican Emergency Training Centre. Addis Ababa.

Wilson-Genderson, M. and R. Pruchno. 2013. Effects of Neighborhood Violence and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afety on Depressive Symptoms of Older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85: 43-49.

Yoon, Hyun Sook and So Rim Yeo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olidarity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lder Adult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1): 53-71.

Young, Anne F., Russell, Anne, Powers, R. Jennifer. 2004. The Sense of Belong to A Neighbourhood: Can It be Measured and Is It Related to Health and Well Being in Older Women? *Social Science & Medicine* 59: 2627-2637.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은택, 강정구, 마강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3-23.

강현정, 김윤정. 2009. 여성노인의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71-80.

김기태, 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복지담당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김명구, 양기근, 정기성.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방향-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13-135.

김정엽. 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2): 29-62.

나영선, 이재열, 한준상, 이경목, 한성안. 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박용순. 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진희. 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25.

서재호, 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

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설동훈. 1998. 한국인의 위험인식. *한국사회과학*. 20(1): 22-61.

신우화, 신우진. 2016. 주민참여형 안전마을사업 전·후 거주민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 대구 달서구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1(2): 19-30.

윤현숙, 염소림. 2016.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연대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8(1): 53-71.

은선경. 2016. 장애정도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2(10): 49-65.

이갑용, 송원호, 강장석, 이재희, 조용근. 2010. 고령화 시내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1(1): 147-162.

이선형, 이연숙. 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 재정 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이성은. 2016. 노인의 지역사회 안전인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6: 129-135.

이정화, 오영은. 2010. 성인자녀의 지원, 부부관계, 마을주민과의 연대감이 농촌 장 노년층의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0(0): 350-351.

임춘식. 2000.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의 가능성. *노인복지연구*. 7(3): 215-236.

임현진, 이재열, 박광민, 설동훈. 1997.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경험적 분석. *한국인구학*. 20(1): 161-199.

정여주. 2018.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2): 781-788.

정운영, 정세은. 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31(4): 1119-1134.

진기남, 이규식. 2000. 노인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질, 보건과 사회과학. 제6·7집(통합호): 35-53.

하춘광. 2007. 공적연금수급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요인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23(3): 1-21.

Received: Nov. 28, 2018 / Revised: Jan. 21, 2019 / Accepted: Jan. 25, 2019

##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연대감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이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대감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분석 자료는 2014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원자료 중 노인가구로 표시한 설문지 3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연대감의 매개경로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안전인식과 연대감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연대감은 사회안전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만족향상을 위해 연대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삶의 만족도, 사회안전인식, 연대감

---

Profiles **Yeo Joo Jung**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1.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Chungwoon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3. She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n welfare for the elderly and women, and safety(yjjung@chungwoon.ac.kr).

**Sun Mi Kim**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7. She han been working as a full-time lecture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6. Her interesting areas of research are mental health, welfare of child and you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sunmine@hanmail.net).

**Eun Ha Kim**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7. She has been teaching time since 2016. Her subjects of interest are women, poverty, work-life balance, and safety(horaengi@hanmail.net).